■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89-115.
http://doi.org/10.17948/kcs.2023..98.89

【 특집 : 담정 김려의 문학과 그의 시대 】

담정 김려의 산문에 관한 일고찰*
— 제후와 간찰을 중심으로 —

정우봉(鄭雨峰)**

목 차

1. 들어가며
2. 김려 산문의 한 국면 : 제후와 간찰을 중심으로
3. 마무리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담정 김려의 산문 가운데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작품들—題後, 簡札, 記文—을 중심으로 김려 산문의 특징적 면모와 의식 지향을 살펴보았다. 김려가 『潭庭叢書』를 편찬하면서 남겼던 題後는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 책을 통해 떠오르는 여러 斷想들을 자유로운 필치 속에 생동감 있는 언어로 서술하고 있어 한 편 한 편이 빼어난 작품으로 읽힌다. 김려는 짧은 편폭 속에서 대상 인물과 관련된 추억과 일화 등을 생생한 장면 묘사와 서정적인 필치 속에 담아내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김려의 叢書題後는 예술성을 갖춘 빼어난 小品文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라진 것들, 이제는 소멸된 것들에 대한 애석한 감정, 작가와 저술의 불운한 운명에 대한 탄식을 토로하였고, 그러한 한탄의 이면에는 부당한 폭력과 횡포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무지, 무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翠蓮峯記」 또한 記文의 통상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대상 인물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기본 흐름으로 삼아 은거의 삶을 추구하는 송치관의 남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는 한편 작가의 절친한 벗이었던 남성구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한편 김려가 남긴 간찰들에서는 자전적 술회의 방식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감정을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격정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부당한 폭력과 횡포 및 그에 기생한 부류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으로부터 훼손된 자아를 반성하고 질책하였다. 김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유배지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자신을 변모시키고 자아를 확장시켜 나갔다. 『사유악부』, 『우해이어보』 등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감담일기』 또한 그 같은 자아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김려, 담정총서, 제후, 제발, 간찰, 이옥, 이안중, 우해이어보, 감담일기.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薝庭 金鑢(1766-1821)의 산문 가운데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김려 산문의 다채로운 면모와 지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김려 산문에 대해서는 '傳'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감담일기』와 『우해이어보』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담정 김려는 한시 작가로서 중요한 성취를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산문 작가로서의 면모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 세계로 관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산문 작가로서의 김려가 성취했던 면모를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김려의 저술 중에는 산문류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1797년에 함경도 富寧으로 유배되어 1806년에 경상도 鎭海에서 해배될 때까지 10년의 유배 생활 기간에 고향집에 보관되어 있던 김려의 저술들은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김려가 쓴 「題思牖樂府卷後」에 의하면 유배 이후에 작성한 저술 목록이 적혀 있는데, 그에 따르면 『歸玄居士稿』, 『烟窗隨筆』, 『蓮姬言行錄』, 『刹那祕史』, 『鍼氈錄』, 『寧山神詞』, 『富春風俗槩』, 『梨下記聞』, 『千愁萬恨書』, 『樺宕羨語』, 『樓砦滑耀記』, 『寧城忠烈傳』, 『坎窞續記』, 『雪窖零言』 등 10여 종이 있었다. 이 가운데 『思牖樂府』 2권과 『坎窞日記』 일부만이 현재 전하고 있을 뿐 여타의 저술들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산일된 저술의 제목

등을 미루어보면, 상대적으로 필기 잡록에 속한 저술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1] 이들 저술이 전하였다면 산문 작가로서의 김려를 구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불행한 삶의 굴곡 속에서 김려의 저술들이 흩어지거나 사라져 버려서, 산문 작가로서의 김려를 온전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전하는 산문 작품을 통해서도 산문가로서의 김려가 보였던 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면모들, 그리고 그 문학적 지향과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려의 산문과 관련해서는 『단량패사』에 실려 있는 傳 작품과 『우해이어보』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된 바 있으며, 근래 『감담일기』에 관한 성과가 제출된 바 있다.[2] 이를 통해 산문 작가로서의 김려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김려가 남긴 여타의 산문 작품—題後, 간찰, 記文 등—을 포괄하여 산문 작가로서의 김려가 지닌 전반적 면모를 구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이 논문에서는 김려가 남긴 산문 작품 가운데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담정 김려의 산문세계의 한 국면을 밝히고자 한다.

2. 김려 산문의 한 국면 : 제후와 간찰을 중심으로

金鑢가 남긴 題後는 『薖庭叢書』와 『한고관외사』 등 叢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우리는 『담정총서』의 편찬 과정에서 작성한 題後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작가와 교분을 나누었던 동시대인들의 시문을 1818년부터 1821년 사이에 정리하였는데, 김조순과 권상신, 김우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관직에서 밀려나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 김려가 10년의 유배 기간을 마친 후 만년의 나이에 총서의 題後를 쓰면서

1) 성균관대 존경각에 소장된 『薖庭遺稿』(필사본, 1책)에는 목활자본 『담정유고』에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필사본 『담정유고』에는 모두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慕先齋上樑文」과 「慕先齋記」를 제외하고 「月巖權公行錄」, 「仲春宿權氏家塾贈而述兄弟二十韻」, 「與而述書」, 「答而準書」, 「三家淨選序」, 「檜溪書院奉安文」은 목활자본 『담정유고』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 김려의 산문 및 여타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함

지난 시절 만났던 인물과 그들과의 인연, 추억 등을 떠올리면서 남다른 감회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총서에 수록된 동시대 인물들과의 인연과 감회, 추억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김려가 남긴 산문 중에서 간찰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친구이자 매형인 李友信에게 보낸 간찰, 김려의 문생이었던 金亨裕에게 보낸 간찰에 주목하여 이들 간찰에 나타나 있는 담정의 울분과 고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1) 生死에 대한 감회와 사라진 존재에 대한 기억

김려가 『薄庭叢書』를 편찬하면서 남겼던 題後는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대상 인물과 김려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을 중심축으로 삼아 떠오르는 여러 斷想들을 자유로운 필치 속에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어 한 편 한 편이 빼어난 산문 작품으로 읽게 만든다. 明淸 시대에 이르러 尺牘과 題跋이 소품문의 중요한 양식으로 여러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었는데, 김려의 題後 또한 조선 후기 산문사, 소품문사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작품으로 여겨진다.

徐師曾은 『文體明辨』에서 題跋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제발은 책 뒤에 붙이는 말이다. 經傳子史나 詩文圖書의 부류는 앞에 序引이 있고 뒤에 後序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만하다. 그런데 그 후에 열람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이의 요청에 따라 혹은 느낀 바에 의해 얻은 것이 있으면 다시금 글을 지어 끝에다가 엮어 두게 되었는데, 이를 모두 題跋이라고 한다. 그 실질을 모아보면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題, 둘째는 跋, 셋째는 書某, 넷째는 讀某이다. (…) 題와 讀은 唐代에서 비롯되었고, 跋과 書는 宋代에서 시작하였다. 題跋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부류를 포괄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그 글은 옛것을 살피고 지금을 증거하며, 의심을 풀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며 법을 세우고 경계를 드리우는 것으로 각각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오직 굳세고 간결함을 위주로 하므로 序引과 같지 않다.[3]

徐師曾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題跋이 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唐代에 이르러서이며, 宋代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명나라 때의 吳訥 또한 『文章辨體』에서 漢나라와 晉나라 때에는 제발이 없었는데, 당나라 때에 한유와 유종원 등에 이르러 비로소 '讀某書', '讀某文' 등과 같이 끝에 붙이는 글이 생겨났고, 송나라 때에 구양수와 증공에 이르러 跋語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였다.[4]

題跋 장르의 문학사 출현이 당송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한편, 서사증은 제발 장르의 기본적인 창작 목적이 '옛것을 살피고 지금을 증거하며, 의심을 풀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며 법을 세우고 경계를 드리우는 것'에 있고, 題跋의 기본적인 풍격이 '굳세고 간결함(勁簡)'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題跋은 특히 송나라 때에 歐陽修, 蘇東坡, 黃庭堅 등에 이르러 다채로운 내용과 특징을 지닌 문학 장르로 발전하였으니, 書畵古董의 취미 확산과 함께 題跋 장르는 더욱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道'의 규범성과 일정 거리를 두고서 순수 학술적 내용을 다루거나 혹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감상과 감수 등을 다루었다. 題跋은 편폭이 짧으면서, 내용과 소재가 다양하다. 그림에 대해 기술하기도 하고, 개인의 정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론적 분석과 논리를 구사하기도 하고, 사실과 사건을 기술하기도 한다.

『담정총서』에 붙인 題後 또한 題跋 장르에 속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내용은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과 감회', 그리고 '작가와 저술의 불우한 운명'이다. 『담정총서』를 편찬하면서 題後를 쓸 때에 10년의 유배를 전후로 하여 교분을 맺었던 인물들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

3) 徐師曾, 『文體明辯』 권45. 題跋者, 簡編之後語也. 凡經傳子史, 詩文圖書之類, 前有序引, 後有後序, 可謂盡矣. 其後覽者, 或因人之請求, 或因感而有得, 則復撰詞以揆於末簡, 而總謂之題跋. 至綜其實, 則有四焉. 一曰題, 二曰跋, 三曰書某, 四曰讀某. (…) 題讀始於唐, 跋書起於宋. 曰題跋者, 舉類以該之也. 其詞考古證今, 釋疑訂謬, 褒善貶惡, 立法垂戒, 各有所爲, 而專以勁簡爲主, 故與序引不同.

4) 吳訥, 『文章辨體序題疏證』(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6), 185면. 予嘗卽其言考之, 漢晉諸集, 題跋不載. 至唐韓柳始有讀某書及讀某文題其後之名. 迨宋歐曾而後, 始有跋語, 然其辭意亦無大相遠也.

또한 김려 자신 및 그와 교분이 있었던 인물들이 남긴 많은 저술들이 흩어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김려는 대상 인물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면서 生死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기도 하고, 사라진 존재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짧은 편폭 속에서 대상 인물과 관련된 추억과 일화 등을 생동감 있는 장면 묘사와 서정적인 필치 속에 담아내었다. 그런 점에서 김려의 叢書題後는 예술성을 갖춘 빼어난 小品文으로 평가될 수 있다.

『薄庭叢書』에 붙인 題後는 1818년부터 1821년 사이에 쓴 글이다. 당시 김려는 53세에서 56세에 이른 만년의 나이였다. 『담정총서』를 편찬한 무렵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趙學春(1755-1817), 李安中(1752-1791), 李魯元(1756-1811), 金善民(1772-1813), 李鈺(1760-1815), 李濟魯(1789-1816) 등이었다.[5] 그 중에서 李濟魯와 관련된 글을 하나 들어본다.

> 아! 幼輿(李濟魯)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병자년(1816) 봄에 幼輿가 부친의 淸風 임소로부터 서울로 와서 임시 머무는 집에 있으면서 승보시를 보아 여러 차례 높은 등수로 합격했다. 한여름 끝자락에 幼輿가 나귀 등에 걸터앉아 靖陵에서 숙직 중인 나를 방문하였다. 그 때에 단 비가 막 개었고 보리 익는 가을이 이르던 때였다. 이에 조각배를 타고서 압구정 아래에서 蜜語[6]를 잡았고, 질탕하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밤을 새워 놀다가 흩어졌다. 당시 함께 노닐던 사람은 나와 小石 金愚淳, 宮里 李伯春(李穆淵), 동생 犀園(김선), 여러 집 자제와 배종한 사람들이 모두 幼輿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다들 무고하지만, 유여만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아아! 슬프다. 내가 병이 든 여가에 그의 글을 수습하고, 그의 집안에서 원고 전체를 구하였지만, 감추고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또한 괴이할 따름이다. 나의 상자에 보관했던 것을 거두어 한 권으로 깨끗하게 베끼었다. 비 내리는 아침과 달 뜨는 저녁마다 때때로 한번 꺼내어 읽으면 나도

5) 김려와 총서 수록 문인들의 교유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김영진, 「김려의 편서 활동과 교유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참조.

6) 徐有榘는 『佃漁志』에서 "蜜魚는 잘기가 밀알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물고기는 초여름에 나타난다.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포목으로 이 물고기를 잡아 냄비나 솥에 물과 함께 담고, 두부 3-5모를 넣은 후 불을 땐다. 물이 데워지면 물고기들은 모두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두부와 밀어가 삶아지기를 기다려서 얇게 썰어 먹으면 별미이다. 속칭 蜜魚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서 밀이 이삭에 빽빽하게 붙은 것처럼 몸이 작은 밀어가 떼를 지어 밀집하는 까닭이다." 柳僖의 『물명고』에는, "밀어는 하천이나 湖沼의 모래 바닥에서 살고, 몸은 작으나, 살은 맛이 좋고, 3-4월에 빽빽하게 몰려온다. 그러므로 밀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다.

모르게 줄줄 눈물이 흐른다.[7]

이 글에 나오는 幼輿는 李濟魯(1789-1816)를 말한다. 총서에는 『耕山遺唾』와 『愚山未定稿』가 실려 있다. 李濟魯의 자는 幼輿, 호는 愚山, 畊山이며, 薄庭의 外從姪이며 李復鉉의 아들이다. 김려는 追敍對比의 수법을 통해 쓸쓸한 감회를 표출하며,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李濟魯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의 정서를 짙게 토로하였다. 지난 시절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추억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상호 대비하는 수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남아있는 작가 자신의 회한과 애도의 심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위 글에서 특히 작가는 이제로와 있었던 여러 추억들 가운데 1816년 이제로가 세상을 떠난 해에 만났던 시간을 회상하였다. 아마도 그때가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당시 김려는 靖陵 參奉으로 부임해 있었다. 정릉으로 찾아온 이제로와 담정은 압구정으로 배를 타고 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한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때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람이 小石 金愚淳(1760-1835), 동생 金璿(1772-1833) 등이었다. 이들보다 나이가 더 어렸던 이제로는 이제 세상에 없다. 더구나 이제로는 김선, 이우신, 김선신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손꼽았던 인물이었다.[8]

옛날 갑진(1784) 연간에 나는 玄同 李平子 安中과 함께 서울 수표교에 있는 지금 상서 西漁 權公의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德水 李魯元(자 太和)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 등불 심지를 돋우며 平子가 큰 소리로 離騷를 한 번 읽으니, 소리가 맑아 육신과 정신이 드높이 솟아올랐는데, 어느덧 30여 년이

---

7) 金鑢, 「題耕山遺唾卷後」, 『薄庭遺藁』 권10, 『한국문집총간』 289, 534면. 嗚乎! 幼輿之沒, 已周歲矣. 丙子春幼輿自其大人淸風任所來, 住于漢師之旅邸, 觀陞試累鬼捷. 孟夏之末, 幼輿跨小衛, 訪余于靖齋直中. 時甘雨新晴, 麥秋方至. 仍具扁舟, 捕蜜魚於狎鷗亭下, 飛觴跌宕, 永夕而散. 當時同遊者, 余及小石金吾與侍郎, 宮里李伯春記注, 舍弟犀園上舍, 而諸家子弟陪從者, 皆長於幼輿. 今皆無恙, 然幼輿獨不在. 嗚乎! 悲夫. 余於病暇, 收拾其文字, 求其全稿於其家, 而祕不肯出, 亦可恠也已. 玆收其貯吾笥者, 淨寫爲一弓. 每於雨朝月夕, 時一披覽, 不覺潸然淚下. 이하 『한국문집총간』에서 인용할 때에는 『총간』으로 약칭함. 번역은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강혜선 역, 『유배객, 세상을 알다』, 태학사, 2007을 참조하였음.

8) 金鑢, 「題左鹵樂府卷後」, 『薄庭遺稿』 권10, 『총간』 289, 536면. 余嘗論當世詩人, 必以犀園及李竹莊益之李愚山幼輿洎季良爲四家.

되었다. 平子는 이미 귀신 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삶과 죽음에 대한 감회가 가슴 속에 맺혀 있다. 작년 겨울에 平子의 조카 小石 金吾與(金愚淳)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고의 초본을 구했다. 먼지 賦를 읊은 원고를 가지고 1권으로 정리하였다. 대개 당시 같이 따라 노닐던 즐거움을 생각해서이다.9)

李安中의 글에 붙인 위의 글 또한 과거 회상을 통해 사라진 존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사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서술하였다. 작가는 30여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추억하였다. 李安中, 李魯元과 함께 수표교에 있던 權常愼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당시 李安中이 깊은 밤에 離騷를 큰 소리로 읽었던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하였다. 金履陽이 쓴 李安中의 묘지명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울분을 토로하던 그의 모습을 형상화한 바 있다.10) 김려는 이미 고인이 된 절친한 벗 이안중의 울분에 찼던 지난 시절을 추억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감회가 가슴 속에 맺혀 있다"고 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토로하였다. 김려는 이안중의 조카 金愚淳을 통해 원고를 수습한 경위를 덧붙이면서, 이안중의 글을 묶어 『담정총서』에 수록한 이유를 "당시 같이 따라 노닐던 즐거움을 생각해서"라고 밝혔다. 뜻이 맞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밤을 새워가면서 문학과 세상을 토론하였던 젊은 시절의 즐거웠던 시간을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 김려는 『담정총서』 속에 이안중의 글을 수습해 두었던 것이다. 짧은 편폭 속에 追敍와 대비의 서술 방식, 인상적인 장면 묘사 등을 활용하여 친구와의 우정과 애틋한 그리움 및 애도의 심정을 잘 드러내었다.

김려는 이안중의 글에 붙인 또 다른 題後 작품인 「題玄同詩稿卷後」에서도 李安中이 驪州의 淸心樓에 올라 離騷, 九歌, 哀江南 등을 암송하며 눈물을 흘렸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驪州 官衙의 客館이었던 淸心樓는 한강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치가 특히 아름다웠다. 驪州八景의 하나인 청심루에서

9) 金鑢, 「題玄同賦稿卷後」, 『薄庭遺藁』 권10, 『총간』 289, 538면. 昔甲辰年間, 余與玄同李平子安中, 會話于京師水橋, 今尙書西漁權公之第, 時德水李魯元太和在座. 夜闌燈灺, 平子高聲讀離騷一遍, 音響瀏亮, 神形超越, 居然作三十餘年. 平子已在鬼錄, 存歿之感, 結在腸曲. 前冬貽書平子甥小石金台吾與, 得其遺集草本, 先取其賦稿, 釐爲一卷. 盖念其當時跌宕追隨之樂也.

10) 金履陽, 「丹山李公墓誌銘」, 『金履陽文集』 2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낙척한 처지의 李安中과 서얼 출신의 金龍行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던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하였다.[11]

> 나는 어려서부터 문장을 공부할 때에 여러 공들 사이를 출입하였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남에게 굽히려는 뜻이 없었다. 그러나 功令文의 경우에는 金性之(金浩天)를, 詞賦에서는 李其相(李鈺)을 敬畏하였다. 매번 동산에서 대국을 하고 종이를 펼치고 붓을 적실 때면 번번이 움츠려들고 불안해져서 상대를 뛰어넘을 기운을 펼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개 어린아이 때부터 조금 뒤쳐져서 앞선 선배로 배우고 벗을 삼았기 때문에 그 형세상 그와 같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태사공(사마천)이 말한바 기세가 눌렸다고 하는 것이니, 문장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제 其相은 이미 죽었고 性之는 늙었으며, 나 또한 쇠약하고 병들었으니, 끝내 남의 아래에서 그치는 것인가? 아! 탄식할만하다.[12]

위의 글에서 김려는 金浩天, 李鈺과 있었던 지난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 중에서 金浩天은 김려의 『황성이곡』에도 등장하는데, 해당 작품의 주석에 따르면 자가 性之이며, 호가 芝川으로 술을 좋아하고 시에 능하였던 인물이다. 조면호 또한 「芝川翁金浩天挽辭」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한 바 있다. 작가는 문장을 공부할 때에 남에게 굽히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의 호기로웠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과거시문에 있어서는 김호천을 경외하였고, 사부에 있어서는 이옥을 경외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두 선배를 항상 능가해 보고자 마음 먹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위세에 눌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점을 김려는 司馬遷이 「報任少卿書」에서 말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위세가 눌렸던 것'에 대해 빗대면서 글을 짓는 것 또한 이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그만큼 두 사람의 문학 실력이 뛰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김려로 하여금 문학 방면에서 움츠려들고 기를 펴지

---

11) 金鑢, 「題玄同詩稿卷後」, 『薄庭遺藁』 권10, 『총간』 289, 540면. 余幼時往來驪上, 從李竹莊先生游, 慣聞丹邱李安中平子, 石坡金龍行舜弼, 文章士也. 每相逢, 輒相樂也. 携手登清心樓, 酒酣以往, 輒誦離騷經九歌哀江南等篇, 徘徊眺望, 相視泣下, 旁若無人者.

12) 金鑢, 「題綱錦賦草卷後」, 『薄庭遺藁』 권10, 『총간』 289, 541면. 余自兒時績文章, 出遊諸公間, 殊無屈首下人之意. 然於功令, 畏金性之, 於詞賦, 畏李其相. 每臨園對局, 伸紙吮筆, 輒踧踖不安, 不得肆凌駕之氣. 此曷故焉? 盖自髫齔, 肩隨而學焉而友之, 故其勢不得不如此. 太史公所謂積威約之勢, 於文章亦然. 今其相已死, 性之已老, 而余亦衰且病焉, 則終爲人下而止者耶? 嗚乎! 可吁也哉!

못하게 했던 두 사람 가운데 이옥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김호천은 늙고 병들었다고 하면서 끝내 두 사람을 능가하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작가의 이 같은 탄식에는 두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시간의 무상함에 대한 슬픔이 깃들어 있다.

아래 글은 『담정총서』에 붙인 제후가 아니라, 記文이다.

> 나는 어릴 때에 南拱辰과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 언제인가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뾰얀 얼굴에 약간 등이 굽었고 눈매가 날렵하여 건들건들 경솔하면서도 시원스러웠다. 그와 함께 문장과 서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입술과 혀 사이에서 말이 술술 破竹之勢로 쏟아져 나와 막힘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진이 나를 보며 "이 사람은 내 친구인 宋稧貫인데, 아무개하고 이종사촌이네. 이 사람은 군자라네."라고 하였다. 나는 평소 공진의 말을 금석처럼 굳게 믿고 있어서 치관이 군자임을 바로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나는 공진과 함께 노닐 때면 치관도 항상 같이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공진이 죽고 이듬해에 내가 유언비어 옥사에 연루되어 북쪽 변방으로 유배를 갔다. 신유년에는 금부옥사에 체포되어 거의 죽을 번했다가 다시 남쪽 바닷가로 유배를 왔다. 10년 만에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 돌아와보니 평소 친지들은 영락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고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
>
> 아! 나는 공진을 통해 치관을 알았고 치관을 통해 취련봉의 아름다운 경치를 알았다. 그러나 지금 공진은 세상에 없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13)

1813년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쓴 記文이다. 위의 글에서 남공진은 南星耆(1753-1787)를 가리킨다. 자가 拱辰으로 김려와 친구 사이이며, 南公轍의 종질이다. 남공철이 그를 위해 지은 묘지명 「學生南君墓誌銘」에 따르면, 시문을 잘 하였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김려의 『사유악부』에

13) 金鑢, 「翠蓮峯記」, 『薄庭遺藁』 권12, 『총간』 289, 574면. 余幼時與宜春南拱辰善, 爲兄弟交. 嘗於其坐, 見一人者白晳微僂, 眉宇翾翾然, 輕率而踈蕩, 與之論文章書畵, 聲在脣舌間, 迎刃而解如破竹. 余心已奇之. 拱辰顧余曰, "是吾故人宋稧貫. 與某爲中表姻, 然其人君子也." 余素信拱辰如金石然, 故知稧貫爲君子人. 由是余與拱辰游, 稧貫未嘗不與, 與之相樂也. 未幾拱辰歿, 其翌年, 余坐飛語竄北塞, 辛酉逮繫錦衣幾死, 旋謫南溟十年, 始宥還. 平生親知, 零落離散, 殆無復存者. (…) 噫! 余以拱辰而知稧貫, 以稧貫而知翠蓮之勝, 然拱辰已不在矣. 然則烏得無存歿之悲也?

그를 위해 지은 시가 전하며, 『坎窞日記』에서는 그를 꿈속에서 본 경험을 시로 노래하기도 했다.

위의 글은 통상적인 記文의 격식에서 벗어나 生死와 聚散에 대한 감회를 기탁하고 은거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은 宋穉貫이라는 인물을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南星耉를 통해 김려는 宋穉貫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송치관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서술하는 글이지만, 작품 곳곳에 절친한 벗이었던 南星耉를 등장시키고 있다. 또한 송치관이 살고 있는 翠蓮峯에 직접 가보지 않고 그의 인물됨을 통해 취련봉의 경관을 상상 속에 재구하였다. 김려는 記文이 기본적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장르이지만, 송치관을 통해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구양수가 쓴 「釋祕演詩集序」, 「眞州東園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김려는 송치관이 거처하는 취련봉을 다룬 記文에서 南星耉를 끌어들이고 있다. 어릴 때 친구였던 南星耉를 통해 송치관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이 함께 어울려 한때의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 것은 「釋祕演詩集序」에서 祕演, 石延年, 歐陽脩 사이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다.

「釋祕演詩集序」는 구양수가 친구인 祕演의 詩集에 써준 한 편의 序文으로 1042년(慶歷 2)에 지은 것이다. 이 글은 통상적인 '序'와는 달리 生死의 聚散으로 글을 시작하여 祕演의 재능과 성격 측면을 그려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비연이 和尙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탁되지 못한, '은거하여 나아가지 않는' 奇男子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동시에 '이미 불교에 경주되어 등용될 곳이 없었다' 라는 한 마디 말을 써서, 무한히 안타까워하는 한편, 함축적으로 불교를 비평하였다. 글 속에서 비연이 뜻을 얻지 못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자는 石曼卿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으며, 아울러 늙음과 죽음, 그리고 이별에 대한 자신의 침통한 감정을 삽입하여 깊은 정감을 나타내고 있다.[14] 그리고 비

14) 陳蒲清 註譯, 『歐陽修文選讀』, 岳麓書社出版, 1984 참조.

연을 '主'로, 석만경을 '客'으로, 그리고 작자인 구양수를 '客中之客(賓中之賓)'으로 설정하여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 방식은 김려가 「취련봉기」에서 南星耆를 통해 송치관을 알게 되고, 세 사람이 함께 어울려 한때의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과 흡사하다.

세상을 등지고 은거해 살아가는 송치관의 인물됨을 부각시켜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절친한 친구였던 南星耆를 작품 곳곳에 배치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의 감정을 기탁하였다. 처음 송치관을 만나게 될 때에 남성구를 등장시키고, 이어서 남성구의 죽음과 작가의 유배로 인해 세 사람의 인연이 끝나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작품 마무리 부분에 이르러서 다시 "지금 공진은 세상에 없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남성구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취련봉기」는 송치관을 위한 기문인 동시에 南星耆를 위한 애도의 글이기도 하다. 이처럼 위 작품은 記文의 통상적인 격식과 달리 인물의 만남과 헤어짐을 주축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 그리고 이별에 대한 작가의 침통한 감정을 기탁하였으며, 직접 가보지 않은 취련봉을 송치관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통해 상상 속 정경으로 재현해 놓았다.

2) 작가와 저술의 불우한 운명에 대한 탄식

김려는 『薄庭叢書』를 편찬하면서 붙인 題後에서 生死에 대한 감회, 사라진 존재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동시에 작가와 저술의 불우한 운명을 한탄하였다. 재능 있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들이 예기치 않게 사라져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하였다. 김려는 여러 글에서 '문장의 厄運', 즉 저술(책)의 수난사를 증언하였다.

> 나는 정조 정사년(1797) 11월에 경원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내 부령으로 옮겨졌다. 신유년(1801) 3월에 의금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해 4월에 영남 진해로 유배되었다가 병인년(1806) 10월에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왔다. 돌아와서 집안을 살펴보니, 논밭과 집은 모두 다 남의 소유가 되었고

오직 초가집 한 채만이 남아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였다. 삶과 죽음을 슬피 생각해보니 저절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가장 안타깝고 슬픈 것은 나의 평소 저술과 죽장 이선생의 시문 초고 및 여러 친구들의 편지가 한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관가에 끌려가는 난리에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다. 문장의 액운을 어찌 이루 다 애통해 하겠는가? 지금 이 시고는 신유년 이후에 쓴 몇 수를 수습하여 한 권을 만든 것인데, 신유년 이전은 불과 7,8수에 불과하다.15)

나는 정조 丁巳年(1797) 겨울에 姜彝天 유언비어 옥사에 연루되어 북쪽으로 경원 땅에 유배되었으며, 얼마 있다가 부령으로 유배지가 바뀌었다. 갇혀 지내며 무료한 때에 무고를 당한 근본 원인, 감옥에서 조사를 받은 개략적인 일, 유배 노정에서 날마다 기록한 것 등을 대략 기록하여 2권으로 만들었다. 이를 『坎窞日記』라고 이름 붙이고 서원에게 보내었다. 신유사옥 때에 서원도 체포되어서, 형제가 나란히 고문을 받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 나는 진해로 유배를 갔고, 서원은 초주로 유배를 갔다. 병인년(1806)에 비로소 성은을 입어 방면되어 돌아와 예전에 썼던 책들을 수습하였다. 『감담일기』 상권은 변고가 일어난 날에 이웃아이들에 의해 불에 태워져 버렸다. 하권만이 남았는데, 없어진 것이 태반이었다. 그러나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조카 鬻淵를 시켜 깁고 꿰매고 잘 베껴 쓰게 하여 총서에 수록하였다. 을묘년(1819) 5월 을축 단양일에 담정이 북산초옥에서 쓰다.16)

김려가 진해 유배 이후에 쓴 시를 모아놓은 『歸玄觀詩草』, 함경도 부령 땅으로 유배되었을 때의 경험을 일기로 남긴 『감담일기』에 붙인 쓴 글이다. 성균관 유생으로 지내던 작가는 1787년 어느 날 갑자기 姜彝天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객의 신세로 전락했다. 이후 1800년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재조사를 받았고 진해로 유배를 갔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1806년이었다.

---

15) 金鑢, 「題歸玄觀卷後」, 『潭庭遺藁』 권1, 『총간』 289, 407면. 余以健廟丁巳仲冬竄慶源, 旋移富寧. 辛酉季春, 被逮錦衣, 受拷掠幾死. 四月配嶠南之鎭海縣, 丙寅十月, 始解歸. 歸視其家, 田園第舍, 盡爲他人之有, 只一茆廬數椽, 不蔽風雨. 愴念存沒, 不覺神悶. 最可嗟惜者, 余平生著述及李竹莊先生詩文草本與諸公尺牘, 幷藏弆一箱, 盡爲閽失於緹騎之變. 文章之厄運? 可勝痛哉? 今此詩草, 收拾辛酉以後若干首爲一弓, 而辛酉以前, 不過七八首云爾.

16) 金鑢, 「題坎窞日記卷後」, 『潭庭遺藁』, 권7, 『총간』 289, 509면. 正廟丁巳冬, 余遭姜彝天飛語獄, 北竄慶源. 未幾, 移配富寧. 塊處無聊, 畧記其被誣根因按獄梗槩及沿路日錄, 合爲二卷, 名曰坎窞日記, 寄示犀園. 及辛酉之禍, 犀園亦被逮, 錦衣兄弟, 幷受拷掠幾死. 余謫牛海, 犀遷楚州. 丙寅, 始蒙恩放還, 收拾舊時書籍. 所謂坎窞日記者, 其上, 變出之日, 爲隣童秉畀回祿. 只存下, 而亦殘缺太半. 然棄之殊可惜, 玆倩侄子鬻淵, 補綴謄寫, 以付叢書云. 己卯五月乙丑端陽, 潭士書于北山草屋.

굴곡 많은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통해 生死에 대한 무한한 감회를 토로하는 한편, 자신과 친구들이 창작한 수많은 글들이 10년 유배기간 동안 사라져 버린 것을 두고 문장의 厄運이라고 애통해 하였다. 작가로서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저술의 불운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려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시련과 좌절을 겪었던 자신의 불행한 과거사를 회상하는 한편, 작가의 불행한 운명처럼 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술들 또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거나 일부 편린만이 남아 있게 된 점에 대해 애석한 마음과 강개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김려에게 있어 문학작품은 창작 주체의 개성과 감정에 충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문의 형식과 기교에 정심하여 그것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구양수가 梅堯臣의 시를 논하면서 곤궁할수록 더욱 공교로워진다고 하였고, 황정견은 두보의 시를 논하면서 늙을수록 더욱 공교로워진다고 했다.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말을 지극한 말이라고 하면서 孟郊를 매요신에 비기고 陸游를 두보에 견주었다. 그러나 나는 곤궁해져서 시가 공교로워지거나 늙어서 시가 공교로워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교로운 사람만이 공교로운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한가? 내가 당나라 이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및 우리나라 시집에 이르기까지 몇 십 몇 백 종의 시집을 읽어보았는데 곤궁한 사람일수록 시는 더욱 스산하였고, 늙을수록 시는 더욱 졸렬하여서 공교로운 솜씨가 거의 없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오직 공교로운 사람만이 공교롭게 시를 지을 수 있으며 곤궁한 사람이 반드시 공교롭게 쓰고 늙은 사람이 반드시 공교롭게 쓰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17]

김려는 위의 인용문에서 구양수의 '窮而後工'의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곤궁한 뒤에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말은 구양수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으며, 문집

17) 金鑢, 「鄭農塢詩集序」, 『潭庭遺藁』 권12, 『총간』 289, 572면. 歐陽永叔論梅都官詩, 以爲窮而益工, 黃魯直論杜子美詩, 以爲老益工. 談者皆曰至言, 而前輩以孟貞曜比聖兪, 陸渭南配少陵. 然予獨以爲非窮而能工, 老而能工, 直工者益工也. 何則? 余閱三唐以下至宋元明淸及我東人詩集, 幾數十百種. 其窮者益酸寒, 老者益蕪拙, 而其工者幾希. 由是觀之, 惟工者可工, 而窮不必工人, 老不必工人也明矣.

등의 서문을 쓸 때에 항용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구양수는 시가 사람을 곤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곤궁을 겪은 뒤에야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곤궁함이라는 것은 개인 생활의 궁핍함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경제적인 가난 등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의 진지한 고통과 좌절, 시련의 체험을 폭넓게 가리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곤궁함을 겪은 뒤에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시인이 마음속에 지식과 경륜을 쌓아 두고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 마음속에 근심스런 생각이나 울분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울분을 글로 표현한다. 이때 시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까지를 그려내고 묘파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벌레나 물고기, 초목과 바람 구름, 새와 짐승의 모습을 보고 그 기이함을 찾고, 인정의 말하기 어려운 것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감정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포착해내고 사물의 참모습을 깊이 살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김려는 구양수의 논리와 다른 측면에서 곤궁하다고 해서 더욱 좋은 시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집을 두루 살펴 본 결과 곤궁한 삶을 살아간 시인들의 작품은 차갑고 쓸쓸한 미감만을 드러냈으며, 나이가 많은 시인들의 작품은 거칠고 졸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로운 자만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요컨대 곤궁한 삶을 문제 삼기보다 시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김려는 구양수의 '窮而後工'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곤궁하여 시가 공교롭고 늙어 시가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시가 공교로운 자만이 더욱 시가 공교롭다'고 주장하였다. 그만큼 문학 작품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전심전력하는 고심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과 그 작품을 모아놓은 저술은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늦가을에 나는 玄湖 權公(權常愼)에게 이끌리어 四郡의 산수를 유람하고자 丹丘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나는 초4일에 출발하여 청풍의 한벽루로 내달려갔다.

> 주인은 從姪 李見心(李復鉉)이었다. 하루를 머물다가 제천으로 가서 의림지로 돌아 들어갔다. 幼輿(李濟魯)의 무덤을 성묘하고 줄줄 눈물을 흘렸다. 잠시 영호정에서 쉬며 실컷 음주를 하고 돌아왔다. 아! 슬프다. 유람이 끝나고 穉川(李濟殷)으로 하여금 유여의 유고를 찾게 하였는데, 모두 다 휘갈겨 쓴 초고여서 변별할 수 없어서 상자에 보관을 하고 왔다. 내가 병든 여가에 그 오류를 대략 바로잡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한 권으로 정리하고 '우산미정고'라고 이름 붙였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幼輿를 저버리지 않게 되었다. 아! 슬프다.[18]

김려는 李濟魯(1789-1816)의 글을 묶은 『愚山未定稿』에 붙인 위의 인용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이제로에 대한 애도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이제로의 무덤을 찾아가 슬픔을 달래고 이제로의 부친 李復鉉(1767-1853)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제로가 남긴 유고를 그의 친형인 李濟殷(1784-1836)으로 하여금 찾아보게 하였는데, 모두 휘갈려 쓴 초고였다. 이후 『담정총서』를 편찬하면서 원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결락된 부분을 보충해서 『愚山未定稿』로 만들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이제로를 저버리지 않게 되었음을 끝에 밝힘으로써 이제로에 대한 작자의 애틋한 마음과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탁하였다. 한 개인이 남긴 저술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김려는 정성스럽게 원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를 통해 요절이라는 불우한 운명을 타고난 이제로의 저술이 후대에 불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 신미년 늦가을에 太和 李公(李魯元)이 泰陵直長으로 침소에서 돌아가셨다. 이듬해 여름에 나는 齋郞으로 그 침소에서 대죄하였다. 옛일을 생각하니 서글퍼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태화공이 돌아가신 후 그가 지은 시문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려서 보았던 태화공의 「柏月堂引」, 「秋碧堂記」, 「行住處記」, 「栗下雜詠」 칠언율시 12수 등은 모두 세상의 뛰어난 작품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다. 문장의 액운을 이루 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19]

---

18) 金鑢, 「題愚山未定稿卷後」, 『潭庭遺藁』, 권7, 『총간』 289, 537면. 季秋余爲按相玄湖權公所拉, 往遊四郡山水, 約會于丹丘. 余以初四日啓程, 馳進于淸風之寒碧樓. 地主李從見心也. 留一日往堤川, 轉入義林地, 省幼輿墓, 泫然淚下. 少憩映湖亭, 痛飮而歸. 嗚乎! 悲夫. 游事畢, 使穉川搜出幼輿遺稿, 皆亂草塗乙, 不可辨, 莊篋而來. 余於病暇, 略正其僞繆, 綴其缺落, 釐爲一卷, 名愚山未定稿. 余於是始不負幼輿矣. 嗚乎! 悲夫.

李魯元(1756-1811)의 문집 『秋碧堂文抄卷』에 붙인 위의 글 또한 문장의 액운을 다루고 있다. 生死에 대한 감회를 통해 이노원을 추억하는 한편 김려는 李魯元이 남긴 글들이 상당수 흩어지고 사라져 버린 점에 대해 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작품의 본문을 다시 읽을 수 없고 다만 제목만으로밖에 흐릿하게 기억나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작가의 짙은 탄식을 불러왔다.

김려는 대상 인물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축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기도 하고, 지난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 대상 인물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기탁하거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상 인물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과 저술들이 사라지고 소멸된 것에 대해 애석함을 표출하였다.

그 같은 애석함과 탄식의 이면에는 시간의 무상함에 대한 감회도 있지만 작품과 저술을 일실하게 만든 부당한 폭력과 횡포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 감정이 함축되어 있으며, 때로는 인간의 무지와 실수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가 깃들어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려와 주변 인물들의 많은 저술들이 의금부 체포와 유배로 이어지는 김려 자신의 불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문장의 액운'에 대한 작가의 탄식에는 그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울분과 분노, 세상을 향한 不平의 기운이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김려는 후손들에 의해 원고가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실수와 부주의, 그리고 무지 등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원고를 잃어버리게 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점은 인간의 무능과 무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

19) 金鑢, 「題秋碧堂文抄卷後」, 『薄庭遺藁』 권10, 『총간』 289, 537면. 歲辛未季秋, 李太和丈以泰陵直長, 卒於寢所. 翌年夏, 余以齋郎, 待罪是寢. 拊古愴然, 不覺淚下. 太和旣歿之後, 其所著詩文, 並散亡殆盡. 尙記余少時見太和所作柏月堂引, 秋碧堂記, 行住處記, 及栗下雜詠七律十二首, 皆絶世奇作, 今不可見. 文章厄運, 可勝歎哉?

3) 가족사의 내력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

김려의 「答李益之書」는 친구이자 매형인 李友信에게 보낸 것이다. 이 간찰은 김려의 가문 및 자전적 삶을 솔직하게 고백한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글의 서두에서 간찰의 형식적이며 의례적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바로 자신의 삶과 가문에 대해 긴 편폭 속에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김려 자신의 自傳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운명이 기구하고 집안의 운수가 막혀서 어이없는 재앙을 입고 불측스러운 죄에 걸려 제 한 놈이 낭패를 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까지 욕되게 하였습니다. 다섯 해동안 관북지방에서 지낼 때 차디찬 움막에 갇혀 있었으며, 두 달 동안 남쪽의 절간에 있을 때에는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 바닷가로 쫓겨 와 이미 네 해를 살았습니다. 독기 어린 바닷바람을 맞아 핏덩어리를 토하는가 하면, 머리털이 희끗희끗 세고 이는 벌어지고 두 눈이 모두 침침해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나무토막이나 돌덩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운데 동생은 아무런 죄도 없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서쪽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스무 살 어린 나이로 막내 동생이 홀로 집을 맡아가지고 가슴을 태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억장이 막힙니다.[20]

김려는 신라와 고려 이래로 명문가로서 이어져 온 자신의 가문을 윗대부터 서술해 내려왔다. 조선조에 들어와 집안이 계속 번창하다가 선조의 장인이었던 7대조 金悌男이 李爾瞻에 의해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등 집안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음을 밝혔다. 金悌南은 선조의 계비였던 인목대비의 生父였다. 그는 1613년 李爾瞻 등에 의해 인목왕후 소생인 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했다는 공격을 받아 賜死되었으며, 1616년에 廢母論이 일어나면서 다시

20) 金鑢, 「答李益之書」, 『潭庭遺稿』 권12, 『총간』 289, 569면. 不幸命道畸窮, 家運衰替, 受橫逆之厄, 陷不測之科, 蕩敗身命, 僇辱門戶. 五載關北, 幽囚雪窖, 兩朔南寺, 幾死拷掠. 又遷南溟, 已喫四麥. 飽飫蒸瘴, 嘔吐血塊, 頭星齒豁, 兩眼俱瞽. 身非木石, 其何以堪? 且仲弟無辜, 酷施刑訊, 楚毒備至, 遂竄西漠. 阿季弱冠, 隻身當室, 燋肝灼肺. 興言及此, 淚闇塞胷.

剖棺斬屍되었다. 4대조 金澈은 실직 없이 통정대부를 추증 받았으며, 증조부 金相汀에 이르러서도 사화에 연루될 것으로 꺼려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조부 金熽에 이르러 본가와 처가, 외가 등이 모두 辛壬士禍에 연루되어 집안이 더욱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김려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答李益之書」에서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아직 어린 나이에 또다시 외가에서 당하는 신축년과 임인년 재앙에 三族이 모두 화를 입어 어린아이 하나 남지 않게 되었다"[21]고 술회하면서 '우리 집안이 몰살당하지 않는 것이 위태롭기가 깃술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吾宗之不至夷滅, 凜如綴旒)'고 하였다. '綴旒'란 면류관이나 깃대 위에 매달린 장식인 깃술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는 모양을 가리키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할 때에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근근이 가문의 명맥을 보존할 수 있었던 지난 시절 가족사의 비극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부친 대에 와서 다시 집안을 일으켜 지난날의 지위를 회복했지만, 가까운 친척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서 김려 삼형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어린 시절 성장하였음을 밝혔다. 다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자신의 대에 이르러 가문은 더욱 더 몰락하고 낙척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통렬하게 자책하면서 지난 시절의 아픈 상처와 기억을 떠올렸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운명이 기구하고 집안의 운수가 막혀서 어이없는 재앙을 입고 불측한 죄에 걸려들어 제 한 몸이 낭패를 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까지 욕되게 하였습니다. 다섯 해 동안 관북 땅에서 지낼 때에는 차디찬 움막에 갇혀 있었으며 두 달 동안은 남쪽의 절간에서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 바닷가에 쫓겨 와서 이미 네 해를 살았습니다. 독기 어린 바닷바람을 맞아 핏덩이를 토하기도 하고 머리털이 희끗희끗 세고 이도 벌어졌으며 두 눈이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나무토막이나 돌덩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운데 동생은 아무 죄 없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갖은 고초 끝에 서쪽으로 귀양을 갔으며, 막내 동생이 스무 살 어린

21) 金鑢, 「答李益之書」, 『薝庭遺稿』 권12, 『총간』 289, 569면. 洎于王考, 甫及髫齔, 又遭外氏辛壬之變, 禍延三族, 靡有孑遺.

나이에 홀로 집을 맡아서 가슴을 태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억장이 막힙니다.22)

김려는 함경도와 영남 땅으로 유배를 다녀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책망하였다. 진해 유배지에서 작성한 위 글에서 작가는 자신의 대에 이르러 패망해 가는 집안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질책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재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하였다. 작자 자신이 당해야 했던 지난 시절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때로는 격렬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현재 겪어야 하는 불행과 시련의 상황을 생생한 언어로 재현하였다. 작가가 품은 여러 감정들 - 고통, 비애, 원망, 울분, 불평, 억울함, 자책 등 - 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이처럼 김려는 비통과 울분을 직설적으로 토로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억울한 심사를 가감없이 드러내었다. 특히 위의 인용글에서 4자구의 연속적 표현은 이같은 작가의 내면심리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이다.

서울 가회동에는 옛날부터 물려 내려오는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에는 白鷺園 동산과 涵翠亭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아버님께서 쉬며 거닐던 곳입니다. 뜰 앞에는 벽도화 두어 그루와 박태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아버님이 손수 심어 가꾼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의 일은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아버님이 몹시 아끼시던 선진양한의 금석문으로 蝌蚪文의 篆字와 鐘鼎의 서체, 그리고 역대 이름난 사람들의 글씨와 그림을 평소에 애써 수집해놓은 것이 수십 상자에 이르렀고, 또 우리나라의 이름난 사람들의 필적과 조상들의 글씨 몇 축, 그리고 아버님이 손수 베껴 놓은 史書와 百家書, 祕書 수십 권, 내가 지어 바치고 임금께 비준한 공령문 100여 장에는 먹빛이 영롱하여 항간에서는 귀중한 보물로 여기던 것인데, 모두 의금부의 나졸들에게 빼앗겨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늘 밤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분한 생각이 뼛속까지 사무쳐 혼자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며 잠을

22) 金鑢, 「答李益之書」, 『薄庭遺稿』 권12, 『총간』 289, 569면. 不幸命道畸窮, 家運衰替, 受橫逆之厄, 陷不測之科, 蕩敗身命, 僇辱門戶. 五載關北, 幽囚雪窖, 兩朔南寺, 幾死拷掠. 又遷南溟, 已喫四麥, 飽飫蒸瘴, 嘔吐血塊, 頭星齒豁, 兩眼俱瞽. 身非木石, 其何以堪? 且仲弟無辜, 酷施刑訊, 楚毒備至, 遂竄西漠. 阿季弱冠, 隻身當室, 燋肝灼肺. 興言及此, 淚闇塞胷.

> 잘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들으니 또 막내아들 湘兒가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정사년(1797) 동짓달 12일 경원으로 귀양으로 가던 다음날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를 낳았을 때 제가 그를 본 적이 없으니, 제가 죽어서 저승에 간들 그 애가 어떻게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과연 저 같은 사람에 비견할 이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23)

자전적 술회 속에서 이어지는 위의 인용문에서 작가의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기에 이른다. 집과 정원, 나무들이 남의 소유가 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진귀한 서적과 글씨, 그림들이 모두 의금부에 압수되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일이 더욱 더 가슴 아프다고 하였다. 작가 스스로 이러한 억울한 감정과 분노의 심정을 "지금도 늘 밤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분한 생각이 뼛속까지 사무쳐 혼자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집안을 몰락의 길로 걷게 하고 수많은 저술과 작품을 사라지게 만든 점에 대해 작가는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라고 격렬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렇게 만든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깊은 원한과 분노의 감정이 깃들어 있다. 세상을 향한 이 같은 불평과 원망의 정서는 다음 간찰에서도 확인된다.

> 내가 처음 잡혀 들어갔을 때, 평소 나를 원수처럼 대하며 미워하던 자들이 이리저리 틈을 보다가 갖은 꾀를 다 부리며 남이 모르는 것까지 끄집어내어 감정을 품고 공격을 하였네. 그리하여 온갖 비방이 쌓여서 여러 의심이 깊어지고, 법망이 좁아져 연루가 더해진 탓이라네. 지방의 관리들은 원래 나와 서로 못마땅해 하는 사이여서 기회가 있으면 물어뜯을 내기나 하고 조정의 지시를 꾸며가지고 패거리를 몰아 체포하는 바람에 관북지방 사람으로서 잘못 걸려들어 화를 입은 사람은 몇 십 몇 백이었네. 감영의 옥에서부터 부령에 이르기까지 큰 길가에 있는 여덟, 아홉 고을의 옥들이 모두 이러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네. 빗발치듯

23) 金鑮, 「答李益之書」, 『薄庭遺稿』 권12, 『총간』 289, 569면. 京師嘉會坊, 有故宅一區, 宅有白鷺之園涵翠之亭, 是先人之所遊息. 庭前碧桃數本, 紫荊一架, 是先人之所手植者, 今爲他人所占. 此非小事. 然其最恨者, 先人酷愛先秦兩漢金石古文蝌蚪之篆, 鍾鼎之體, 與夫歷代名家書畵, 常極力聚集, 多至十數函, 暨東國名賢筆跡, 祖先遺墨若干軸, 先人手抄子史祕書數十卷, 及僕所製進御批功令文券百許頁, 璇墨璀璨, 爲閭閻家至寶, 盡被金吾邏隸剽竊鹵掠, 無一畧存. 每中夜思之, 痛入骨髓, 獨起彷徨, 不能成寐. 往歲又聞湘兒夭去, 僕以丁巳至月十二日, 竄慶源, 兒以翌日生. 渠生也, 吾不見渠, 吾死也, 渠豈識吾? 悲夫悲夫! 往古來今, 亦有如僕者比耶?

> 매질을 하여 살가죽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흘러내려 뜰에 넘치니, 억울하고 분통한 소문이 사방에 자자했네. 이런 때를 당하여 진실로 충성이 해와 별 같이 빛나고 신의가 쇠와 돌같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황하여 몸 둘 데가 없어서 숨을 죽이고 자취를 감추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네. 비유하면 화살에 놀란 새가 빈 시위소리만 들어도 멀리 달아나버리고, 통발에서 풀려난 물고기가 떠다니는 지푸라기만 보고도 깊이 숨어버리는 것과 같다네. 이것은 물론 이치로 보거나 형편으로 보거나 그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아! 슬프다. 이것은 서로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는 말이라네.24)

위의 글은 부령 지역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때 김려의 문생이었던 金亨裕에게 보낸 간찰이다. 그는 이전 유배지였던 부령의 의원 집안 아들로서, 물심양면으로 유배객 김려를 돌봐주었던 인물이었다. 삼천리 밖에서 삼백일이 걸려서 도착한 편지를 받아든 작가는 제자에게 답하는 답장 편지에서 지난날 부령 유배지에서 고초를 당했던 때를 회상하였다. “빗발치듯 매질을 하여 살가죽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흘러내려 뜰에 넘”친다고 하여 모진 고문을 가하는 장면을 생생하면서 격렬한 언어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부당한 권력이 자행하는 공포 속에서 인간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작가는 그러한 권력에 기생하는 부류들의 행태를 따갑게 풍자하였다.

이처럼 김려가 남긴 간찰들에서는 자전적 술회의 방식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부당한 폭력과 횡포 및 그에 기생한 부류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으로부터 훼손되고 부서진 자아를 되돌아보고 때로는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

24) 金鑢, 「答金羲益書」, 『藫庭遺稿』 권12, 『총간』 289, 571면. 盖僕之初被逮也, 常時讎怨媢疾之類, 伺釁抵隙, 巧發奇中, 抉摘幽隱, 挾憾交攻. 衆謗積而羣疑深, 禍網密而連累增故也. 且藩臬之臣, 與僕素不相得, 乘機傾軋, 妄希時論, 矯發朝旨, 經先逮捕鉤黨, 關北人士橫罹遭變者幾十百. 自營獄洎于本府沿路之間郡邑八九, 囹圄充滿. 榜箠如雨, 皮肉剝綻, 流血盈庭, 寃酷毒痛, 流鋪四聞. 當是時, 苟非忠誠貫日星, 信義透金石, 莫不蒼黃却顧, 屛息斂跡. 譬若傷弓之鳥, 聽虛絃而遐擧, 脫笱之魚, 眡浮梗而潛逝, 固其理勢不得不然, 而僕豈有望耶? 嗟呼嗟呼! 此可與知者道, 不可與不知者道.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불평의 심정과 분노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김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유배지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자신을 변모시키고 자아를 확장시켜 나갔다. 『사유악부』, 『우해이어보』 등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감담일기』 또한 그 같은 자아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감담일기』에서 화자는 유배지로 향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존재성을 탐구하고 재정립해나갔다.[25] 화자는 일기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유배 체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한편, 때로는 울분을 토로하고 고통을 하소연하며 때로는 하층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본다. 『감담일기』에 보이는 화자의 유배길 여정은 마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자기를 재정립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화자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덧 화자는 새로운 자아를 모색하기도 한다. 유배 여정의 거듭되는 변화 속에서 화자는 자신을 찾고 자신을 확립해 나간다. 자기 비하와 자기 책망, 부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울분에 찬 모습에서부터 점차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층민들의 환대를 받고 그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느끼면서 또 다른 자아로의 자기 변화의 과정을 겪어나간다. 이것이 『감담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면모이며, 여타의 일기에서 보기 어려운 특징적 면모이기도 하다. 『감담일기』는 유배객으로 바뀐 참담하고 왜소화된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내면의 자신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점차 외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자아의 변화하는 모습 또한 보여준다. 이 점에서 『감담일기』는 자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

25) 정우봉,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참조.

3. 마무리

이상에서 김려의 산문 가운데 그동안 작품 세계와 관련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작품들—題後, 간찰, 記文—을 중심으로 김려 산문의 특징적 면모와 의식 지향을 살펴보았다. 김려가 『薄庭叢書』를 편찬하면서 남겼던 題後는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 책을 통해 떠오르는 여러 斷想들을 자유로운 필치 속에 생동감 있는 언어로 서술하고 있어 한 편 한 편이 빼어난 소품으로 읽힌다. 특히 대상 인물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중심축으로 삼아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고 이를 통해 대상 인물 및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고 生死에 대한 감회를 기탁하였다. 김려는 짧은 편폭 속에서 대상 인물과 관련된 추억과 일화 등을 생생한 장면 묘사와 서정적인 필치 속에 담아내었다. 그런 점에서 김려의 叢書題後는 예술성을 갖춘 빼어난 小品文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라진 것들, 이제는 소멸된 것들에 대한 애석한 감정, 작가와 저술의 불운한 운명에 대한 탄식을 토로하였고, 그러한 한탄의 이면에는 부당한 폭력과 횡포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무지, 무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翠蓮峯記」 또한 기문의 통상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대상 인물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기본 흐름으로 삼아 은거의 삶을 추구하는 송치관의 남다른 모습을 부각시키는 한편 작가의 절친한 벗이었던 南星耉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한편 김려가 남긴 간찰들에서는 자전적 술회의 방식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부당한 폭력과 횡포 및 그에 기생한 부류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으로부터 훼손된 자아를 반성하고 질책하였다. 김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유배지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자신을 변모시키고 자아를 확장시켜 나갔다. 『사유악부』, 『우해이어보』 등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감담일기』 또한 그 같은 자아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여타 산문들을 함께 엮어서 김려 산문의 전반적인 양상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金 鑢,『潭庭遺藁』, 한국문집총간 289.
金 鑢 編,『潭庭叢書』 영인본, 학자원, 2014.
金 鑢,『潭庭遺稿』, 성균관대 존경각.
_____,『坎窞日記』, 성균관대 존경각.
_____,『潭庭詩集』, 성균관대 존경각.
_____,『思牖樂府』, 성균관대 존경각.
박효증,『富寧郡誌 : 부령인의 망향반세기』, 부령군민회, 1993.
강혜선 역,『유배객, 세상을 알다』, 태학사, 2007.
박혜숙 역,『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
박준원 역,『우해이어보』, 태학사, 2004.
오희복 역,『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민영규선생 기증 귀중고서 특별전』, 연세대 중앙도서관, 2007.
徐師曾,『文體明辯』
吳 訥,『文章辨體序題疏證』,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6.

강명관,「담정 김려 연구(1)」,『교사교육연구』 9, 부산대 사범대, 1984.
강혜선,「김려의 패사소품문 연구」,『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하)』, 집문당, 1998.
_____,「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김려의 한시」,『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학회, 2006.
_____,「조선 후기 한시 속의 일상의 양태와 의미」,『한국한시연구』 15, 한국한시학회, 2007.
_____,「김려의 만선와잉고에 나타난 일상성」,『돈암어문학』 20, 돈암어문학회, 2008.
권석창,「18-19세기 야사총서의 문헌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김경미,「여성주의적 독법으로 본 김려의 여성 인식과 시적 형상화」,『페미니즘연구』 8(1), 동녘, 2008.
김영진,「김려의 편서 활동과 교유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김하라,「서어유고와 그 주변」,『규장각』 4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박영민,「사유악부, 유배객 담정의 관기 보고서」,『문헌과 해석』 39, 문헌과해석사, 2007.
박준원,「담정총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우해이어보 소재 우산잡곡 연구」,『동양한문학연구』 16, 동양한문학회, 2002.
_____,「만선와잉고 연구」,『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_____,「감담일기 연구」,『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박혜숙,「담정 김려: 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한국문화』 1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신상필,「조선조 야사의 전개와 한고관외사의 위상」,『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심경호,『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1.
_____,「감담일기 해제」,『조선시대 개인 일기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안대회,「조선후기 야사총서 편찬의 의미와 과정」, 민족문화 15, 민족문화추진회, 1992.
_____,「한고관외사 해제」,『한고관외사』 영인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2.
_____,「패림과 조선후기 야사총서의 발달」,『남명학연구』 2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5.
_____,「김려의 야사 정리와 한고관외사의 가치」,『문헌과 해석』 39, 문헌과해석사, 2007.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2』, 평민사, 2004.
윤호진,「패림의 구성과 그 가치」,『열상고전연구』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이신복,「담정 김려 한시 연구」,『동양학』1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8.
정용수,「한고관외사의 체제와 일실된 작품들의 존재」,『남명학연구』2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정우봉,「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_____,「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야사총서의 학술적 가치」,『민족문화연구』8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허경진,「창가루외사의 편찬 의도와 내용 대하여」,『인문과학』41,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허준구,「단량패사의 야사적 성격과 그 의미」,『태동고전연구』14,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7.
홍진옥,「김려의 단량패사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_____,「담려 김려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陳蒲清 註譯,『歐陽修文選讀』, 岳麓書社出版,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prose of Damjeong Kim Ryeo

Chung, Woo-bong*

Focusing on the works that were not properly illuminated among Kim Ryeo's prose, the characteristic aspects and consciousness orientation of Ryeo Kim's prose were examined. Rather than focusing on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book, the epilogue that Kim Ryeo left while compiling the *Damjeongchongseo* describes various fragments that come to mind through the book in a lively language with free brush strokes, so each side is read as an outstanding prop. In particular, with meeting and parting with the target person as the central axis, the past and present were compared, and through this, the target person and related memories were recalled and feelings about life and death were deposited. In addition, through this, they expressed sorrowful feelings for things that have disappeared and now extinct, and lamentation over the unfortunate fate of writers and writings. It contained a warning message.

In the letters left by Kim Ryeo, he passionately expressed his inner feelings through autobiographical recollections, and sharply criticized unfair violence and tyranny and the parasitic behavior of the kind. Through this, he reflected on and reprimanded the ego damaged by the absurd world. Kim Ryeo did not stay here, but transformed herself and expanded her ego through contact and exchange with various people she met in the place of exile. This point can be confirmed through *Sayuakbu, Uhaeieobo,* and *Gamdam Diary* also shows the process of such a change of ego well.

Keywords: Kim Ryeo, *Damjeongchongseo,* epilogue, letter, *Uhaeieobo, Gamdam Diary,* Lee Ok, Lee Anjoong.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